



군자(君子)와 소인

子曰 君子는 周而不比하고 小人은 比而不周한다. 자왈 군자 주이불비 소인 비이부주 - 논어, 위정편 제14장

“공자께서 말했다. 군자는 골고루 통하되 사사로이 단파에 매이지 않으며, 소인은 패거리를 지어 서로 견주되 두루 통하거나 화합하지 않는다.”

소인과 군자와의 차이를 말한 것이다. 여기서 비(比)는 손익(損益)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아합한다는 뜻이다. 군자는 인도(仁道)에 따를 뿐 이해(利害)에서 벗어나 자신의 명예(名譽)와 영달(榮達)을 꾀하지 않는다.

자로권 23장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다.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

“군자란 서로 어울리되 패거리를 짓지 않는다. 소인은 서로 같은 듯하지만 어울리지 못한다.” 군자와 소인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군자는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않고 소인은 부화뇌동한다.

군자는 스스로 재능이 없음을 근심하며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않지만 소인은 자신의 작은 재능을 과시하려 하며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노여워한다.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말하고 나쁜 점을 말하지 않지만 소인은 타인의 좋은 점을 말하지 않고 나쁜 점만 말한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 군자(君子)는 남이 잘 되기를 먼저 생각하고 소인(小人)은 내가 잘 되기를 먼저 생각한다.

군자는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감싸주지만 소인은 남

의 잘못을 비판하고 들추어내기를 좋아한다. 군자는 남의 잘못에 관대하고 소인은 자신의 잘못에 관대하다.

군자는 자신에 엄격하고 소인은 부하직원이나 아랫 사람에게 엄격하다.

이상과 같이 군자와 소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군자가 따로 있고 소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군자의 특성에 맞도록 행동하면 군자이지만 소인의 특성에 맞는 행동을 하면 소인이다. 그래서 소인도 마음을 닦으면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기를 좋아한다. 군자보다는 소인이 많은 까닭이다. 그러나 자신이 소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소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거슬삼아 자신의 비뚤어지고 모란 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고 노력하다보면 어느새 주위의 사람들로 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가진 것은 넉넉지 않지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불가에 아귀지옥이라는 말이 있다. 아귀는 입을 바늘구멍만 한데 몸집은 집처럼 하여 끊임없이 먹어대지만 아무리 먹어도 그 배를 채울 수가 없다고 한다.

권력과 재물에 눈이 먼 아귀가 되어버리기 전에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자.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인의 삶보다는 타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작은 것이지만 베풀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군자의 삶이 아니겠는가.*

승리의 요가 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겨울에 들어선 요즘 태양 빛 오묘하지만 하나님의 빛만큼 깊고 오묘하리라! 하나님의 빛만큼 겸허하고 지혜로우리라! 무자비한 마귀의 신은 편협하고 우둔하며 품 잡고 뛰는 행동뿐이며 남의 것을 탐내며 시기 질투하는 무례한 신이다.

승리재단에서는 무병장수를 넘어서는 훨씬 높은 차원의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썩지 않고 변치 않으며 영원무궁토록 빛나는 이긴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열심히 운동을 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이루는 행복한 습관을 만들어 하나님의 빛으로 화할 때까지 노력해보자.



① 동작: 다리를 양 옆으로 확장하고 상체를 우측으로 비틀어서 척추를 바로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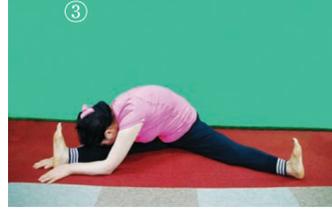
효능: 하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탄력 있는 다리라인을 만들어 준다. 주의: 하체의 앞면 경직이 심한 경우 발



② 동작: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들어서 내쉬는 숨에 천천히 후굴시킨다. 마시는 호흡에 원위치로 돌아온다. 5초 유지, 우좌 교대 반복.

효능: 골과 후굴 자세를 통해 균형을 바로 잡는다. 잘 안 되는 방향을 더 수련한다.

주의: 하체의 뒷면 경직이 심한 경우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준다.



③ 동작: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기고 호흡을 내쉬며 상체를 허벅지 위로 내려간다.

이마가 무릎에 닿을 정도로 숙인다. 5초 유지, 우좌 교대 5회 반복.

효능: 옆구리 군살을 제거하고 복직근을 자극하고 수축하여 복부 및 허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주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고 무리하지 않는다. 잘 안 되는 쪽을 더 많이 한다.



④ 동작: 양 다리를 본인의 능력에 따라 확장하고 앉아서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겼다 왔다 반복한다. 이때 허벅지 전면부위가 경직되거나 통통한 사람은 발끝을 펴준다. 엄지와 양손을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엄지 발가락을 잡고, 코로 숨을 내쉬며 배꼽 가슴 이마 순으로 내려간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간다. 꼬리뼈 척추 경추를 바르게 끌어 올리듯 위로 펴준다.

효능: 하체의 피로를 회복하고, 골반균형을 바로잡고, 유연성이 증대되며 고관절의 경직을 해소한다. 골반주위의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남자의 배뇨장애 도움. 임신부에 도움.

주의: 유연성에 따라 무리하지 말고 개인 능력에 맞추어 수련하면서 차츰차츰 늘려 나간다. 5초 유지, 우좌 교대로 5회 반복.*



柔弱微細 生之徒也

유약미세 생지도야
부드럽고 연하고 미세한 것은 살아있는 것들이외다

도덕경 76장 해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속에 내재된 생명의 본성을 제대로 꽃 피우고자 함이 아닐까! 그래서 옛 각자(覺者)들은 그 길과 방법을 찾아 산으로 계곡으로 스승을 찾아 나섰고, 그리하여 오랜 세월을 걸쳐 터득한 내공과 도력이 비전(秘典)이 되어 인류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 되었다. 그 비전 중의 하나, 도덕경이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는 만물의 작용과 이치를 밝히면서 인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값지게 길이길이 아름답게 하고자 함이었다.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도 특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생명의 본성에 대한 정의와 의미 확립, 그리고 생명성의 추구하고 확장을 강조하면서 인간 존재의 사명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간결한 필치로 정리하고 있다.

세계 내에 자연환경과 삶의 조건은 곧, 인간에 의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보다 나은 세계로의 진전을 피하게 된다 는 것을 노자 도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참다운 도의 이치를 밝히면서 수도를 통하여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을 맑고 밝은 이상향의 세계로의 도모를 꿈꾸고 노래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장에선 생명의 본성작용과 평화로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연한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연한 삶을 통하여 함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를 고대하고 있다. 죽어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정 살아 있는 생명 체라야만 갖고 있는 유연함이 생명성과 인간비의 진가(眞價)를 드러내 보인다고 하겠다.

과 도덕성의 화귀로의 하나된 목표로 그 뜻이 모아지면, 이 세상은 훨씬 빨리 사람 살기에 좋은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변화의 대상은 사람을 떠난 이 세상이 아니다. 나 아닌 타인도 더더욱 아니다. 바로 나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 비롯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각자들로부터 변혁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 변혁은 딱딱하고 굳어진 우리들의 삶과 인성이다. 사람이 부드럽고 온화하면 그의 삶과 그의 주변이 함께 온화해질 것이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진정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온화한 사람이 될 것을 주문한다. 돈과 명예, 그리고 세상의 향락을 좇는 사람은 거칠어지고 굳어져 가는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유유자적하며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바로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人之生也 柔弱(인지생야 유약):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其死也 堅強(기사야 견강): 죽으면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이다;

萬物草木之生也 柔脆(만물초목지생야 유취): 온갖 초목도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다

其死也 枯槁(기사야 고고): 그것이 죽으면 바짝 말라버리는 것이오.

故曰堅強者 死之徒也(고왈견강자 사지도야): 고로 이르길, 굳고 딱딱한 것은 죽는 것들이며

柔弱微細 生之徒也(유약미세 생지도야): 부드럽고 연하고 미세한 것은 살아있는 것들이외다.

兵強則不勝(병강칙부승): 군대가 강하기만 한다면 승리하지 못하고

木強則折(목강칙절): 나무가 강하기만 하면 부러질 것이오

強大居下(강대거하): 강한 것은 거대해서 아래로 가리라고

柔弱微細居上(유약미세거상): 연약한 것은 미세해서 위로 떠올라 있는 것이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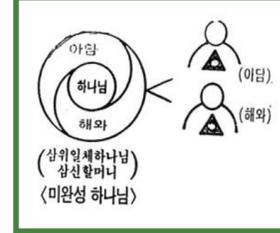
김주호 기자

허만욱 승사 칼럼

삼신할머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한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삼신할머니를 사모하며, 그의 출현을 갈망하고 갖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살아왔던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요 생명이므로 아담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아담도 하나님이요 해와도 하나님이요. 즉 몸은 하나지만 그 조직원은 세 분(삼위)인 셈이다.

피를 썩게 하여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후손들이 그 조상이 하나님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면, 원시반본(原始返本) 사상이 썩어 버린 것을 열려하여, 일체감지 인간과 하나님과는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려고 아담과 해와를 흠으로 빚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 창론을 버섯이 성경에 게재하였던 것이다. 이쯤 되면 마귀의 간교한 계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무서운 계락은 은밀히 진행되었는데 우선 구세주 타이틀 선취(先取)작전을 틀 수 있으며, 여기서 가장 중심체가 될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심인물인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조직의 중앙에 모시고, 즉 성부 성자 성신으로 형식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여기서 큰 실수를 범하였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즉 하나님과 성령은 동격인 하나님의 영임을 모르고 2천여 년을 삼위일체가 아닌 2위일체를 고수하여 왔으니, 이런 개방신을 저지르고도 그 가짜 구세주의 간관을 사수한다면 그는 진짜 GOD의 반대이다.*



이와 같이 세 분은 영적으로 한 몸이며, 동시에 각자가 하나님인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흠으로 아담을 빚고, 그가 잠든 동안 그의 갈비뼈를 뽑아 해와를 빚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아담과 해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죄로, 그 들을 에덴동산에서 내쫓았다고 하는데 같은 생명체(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의 영이 한몸인 아담과 해와의 신을 내쫓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며, 참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유치한 마귀의 핍수에 불과하다. 실제에 있어 위와 같은 거짓논법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 미완성 하나님께서 마귀에 패하여 그 포로가 되는 순간, 남녘로 변했는데 그 순간부터 마귀가 주체영으로써 하나님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마귀는 사망의 신인고로 하나님을 괴롭혀서 그



본부재단 032-343-9981~2

전국재단 및 해외재단 연락처

- 영국재단 : (032)343-9981-2, 수원재단 : (031)236-8465, 안성재단 : (031) 673-4635, 평택재단 : 010-9261-9974, 부산재단 : (051)863-6307, 영도재단 : (010)6692-7582, 김해재단 : (055)327-2072, 대구재단 : (010)6530-7909, 마산재단 : (055)241-1161, 진주재단 : (055)745-9228, 진해재단 : (055)544-7464, 영천재단 : (054)333-7121, 사천재단 : (055)855-4270, 포항재단 : (054)291-6867, 순천재단 : (061)744-8007, 정읍재단 : (063)533-7125, 군산재단 : (063)461-3491, 대전재단 : (042)522-1560, 청주재단 : (043)233-6146, 충주재단 : 010-9980-5805, 橫濱祭壇 : (045)261-6338,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関祭壇 : (083)32-1988, 久留米祭壇 : (094)21-4669, 岐阜祭壇 : (058)432-1350, 大阪祭壇 : (06)6451-3914, 神奈川祭壇 : (045)451-3150, Philadelphia : (215)722-2902, London : (0208)894-1075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랑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